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T/F팀,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설치(안) 제시

-본회,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권역별 공청회 대성황

본회는 8월 12일 경기·강원권을 시작으로 13일 충청권, 17일 전라·제주권, 18일 경상권 등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10년을 가늠하는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청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양돈산업 발전대책 T/F팀에서 수립한 양돈정책의 주요방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개방화에 대비한 선도적 글로벌 브랜드 육성과 지역특화 및 기능성을 강조한 로컬브랜드 육성을 포함한 고품질 브랜드 돈육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하고, 둘째로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양돈시스템을 구축하고, 셋째, 생산 전과정 HACCP 및 생산 이력제 도입 등 사육에서 소비까지 돼지고기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넷째,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 양돈 방역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생산자 단체의 자율 수급관리 체계 구축으로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통·수급, 개량·번식, 사양·경영,

분뇨·환경, 질병·위생 등 5개 분야별로 각종 사업을 세분화하였다.

한편 본회는 7월 15일에 있었던 T/F팀 1차 회의에 이어 7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오산시 소재 롯데연수원에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양돈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 제2차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8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T/F팀장·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각 위원회가 7월 29일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양돈분야 농업·농촌대책 세부사업(안)에 대해 조정하고, 공청회 진행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를 했었다.

본회는 8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제3차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각 권역별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각 위원회별로 종합의견을 정리하고 종합대책 최종안 추가 및 보완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각 위원회별로 수정 보완한 최종안에 대해 농림부와 최종 검토 및 협의를 거쳐 8월 27일경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최종안을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영열 T/F 공동팀장은 향후 T/F팀을 본회 산하의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가 주도적으로 양돈정책 수립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겠다는 추진의사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84페이지 참조)

본회, 친환경 농업에 찬물 끼얹는 언론사 강력 규탄

지난 8월 11일자 국민일보 1면 톱기사에 “중금속 비료 전국 논밭 뿌려졌다”는 제목으로 가축분뇨 액비가 마치 토양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오염원인양 보도한 것과 관련 본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본회는 각 도협의회 및 전국 지부(회)에 국민일보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전 양돈인이 함께 강력히 규탄할 것을 요청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도 공동으로 대처해 이번 사안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간 친환경 축산을 위해 액비를 사용해 오고 있는 유럽지역에서도 액비의 아연, 구리함량 초과 문제로 직접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없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은 농작물 피해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우리 축산업계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화학비료로 오염된 우리 국토를 살리기 위해 축산분뇨를 농토에 환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일보의 왜곡된 보도는 친환경 농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써, 우리 농업이 가야할 큰 흐름을 무시한 편협한 보도로 이뤄져, 마치 친환경 농업 정책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회는 국민일보사의 과대 보도 및 오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잘못된 보도내용을 즉시 사과하고 정정 보도할 것과, 전 국민과 경종농가들의 액비에 대한 불신감 해소에

앞장설 것, 향후 신중한 언론보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본회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축산업계는 물론 경종농가 등과 연계해 강력히 항의하고, 산업이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작물에 대한 영향, 해외 사례, 기준근거 등을 조사해 대응자료 마련과 함께 대처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각 언론사에 ‘친환경 농업 중요성’ 기사 게재 추진, 분뇨 자원화의 필요성 등 홍보와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회 최영열 회장 등 국민일보사 항의 방문

- 국민일보 가축분뇨 액비 왜곡 보도 관련

8월 11일자 국민일보의 중금속 비료 전국 살포 보도와 관련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본회 최영열 회장, 이병모 부회장,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정종극 감사, 김동성 전무 등 본회 임원 등은 지난 8월 16일 국민일보사에 항의 방문해 국민일보 편집국장, 경제부장 및 차장 등을 만나 국민일보의 가축분뇨 액비 보도 관련 내용의 잘못된 점과 분뇨 자원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잘못된 보도내용을 즉시 정정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 등은 국민일보 8월 11일자의 “중금속 비료 전국 논밭 뿌려졌다” 기사와 관련 “중금속 비료”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가축 분뇨 액비가 마치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원 인양 매도한 점과, 액비를 사용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도해 경종농가 및 국민들이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됐으며, “액비에 구리·아연 과다시 잎의 황백화, 뿌리신장 및 발생저해, 식물의 뒤틀림 등이 발생된다.”고 하나 실제로 발생한 내용이 없음에도 정확한 피해 사실도 파악하지 않은 채 기사가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리, 아연이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 시행된 규정이 없으며, 해당되지도 않은 사항으로, 친환경 농업이라는 큰 흐름을 외면하고 보도 이후의 영향을 도의시한 편협한 보도로 친환경 농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국민일보사는 전 국민과 경종농가의 불신감 해소를 위해 잘못된 보도내용을 즉시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것과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한편 향후 신중한 언론보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농업진흥지역내 축사 신·증축 규제 완화하라”

- 본회, 7월 26일 “농지제도 개선 및 농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주장

본회는 지난 7월 26일 농업기반공사에서 개최한 “농지제도 개선 및 농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축산인이 축사용 건축물 신·증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업 생산활동을 위해 농지의 이용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본회는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규모가 점차 전업화 되어가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은 농업진흥 및 농업보호 구역 안에서 축사 신축 및 증축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축산인이 축사용 건축물 신·증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축장 사용 전기요금 ‘농사용’으로 전환돼야

본회는 지난 7월 24일 산업자원부에 도축장의 경영개선과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도축장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을 요청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산업자원부가 도축장 사용전력을 ‘농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본회에 따르면 최근 축산물을 도축하는 도축장이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HACCP의 무적용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어 운영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산물 저온 보관시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력(병)이 적용되고 있고, 도축업은 축산업의 범주에 속하며 전기소요는 주로 도축시설, 냉장·냉동시설·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사용되어지므로 농사용 전력 적용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양돈지도자, “국내 양돈산업 우리가 이끈다.”

9월 17일~18일 '2004년 양돈지도자 연수회' 개최

본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대전 유성 소재 신용협동조합 연수원에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 및 대의원, 본회 임원 및 지부장, 양돈조합장, 지역 축협조합장 등 양돈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양돈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전 양돈인들의 단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전략 방안을 모색키 위해 개최되는 이번 양돈지도자 연수회에서는 친환경 직불제 등 최근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운용방안, 구제역, 돈열 재발방지 및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또한 본회, 양돈조합 등 전 양돈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양돈산업 생존전략 마련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고 주제별 심층 분임토의, 양돈자조금 사업 조기정착과 효율적 시행 방안, 주요 돼지 전염병 근절대책 및 방역대책, 분뇨처리 문제 등 양돈농가 주요 애로사항과 국내 양돈산업의 장기적 생존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본회, “수입 돼지고기 국산 둔갑판 때 더 이상 안돼”

본회는 현재 수입돼지고기 유통경로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하루 속히 도입되고 이에 돼지고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는 최근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가 어떠한 유통경로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이 고기가 수입 돼지고기인지 아니면 국산 돼지고기인지를 먼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회는 이를 위해 우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육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하루 속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시 쇠고기 뿐만아니라 축산업 생산업 중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이 수입육과 국산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수입 돼지고기가 국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환경지도 공무원, 농장출입시 방역사항 철저히 준수해야

본회는 7월 20일 축단협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환경부에 일부 시군에서 양돈농가의 환경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양돈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이 정문에서 소독 및 방역 조치 없이 여러 농장을 출입하고 있어 가축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무원이 가축방역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양돈농가 가축방역 요령' 등에서는 사람에 의한 전염병 전파 위험요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부득이 농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개

끗한 작업복(방역복)·덧신·모자·장갑을 착용하고, 출입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기구나 물건도 철저히 소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료수의사, 동물약품/ 사료회사 요원 등에게도 철저한 방역조치가 행해져야 하며, 우편 집배원, 신문·우유 배달부 등 단순 방문자들 또한 여러 농가를 출입하게 되므로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수의학과 졸업생 산업동물 분야 진출 제도 개선필요”

최근 본회는 수의과대학의 수의학과 졸업생들이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에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키로 한 2005학년도 수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120명으로 증원한다는 사항을 검토중인 데 대하여 수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대신 수의사 보조 인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농림부에 요청했다.

본회는 현재 축산현장에서 수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수의학과 졸업생들의 배출숫자가 사회적 수요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산업동물 보다는 소동물(반려동물)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학과 신설 및 축산관련학과에 방역관련 교육 등을 통해 수의보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돼지고기 바로알고 바로먹자”

- 본회, TV 캠페인 광고 추진중

본회는 2004년도 양돈자조금사업 세부추진

계획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 바로알고 바로먹기” TV 캠페인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회는 돼지고기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및 돼지고기의 특성과 장점을 강조해 소비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뉴스 전문채널인 YTN 언론사와 공동으로 총 6편의 소재를 제작해 교체 방영하고, “돈(豚)사랑”이라는 주제하에 돼지고기를 즐겨먹는 방안을 경제, 건강, 맛 등 3가지 소재별로 중점을 뒤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눠 1일 3회 방영할 계획으로 현재 YTN과 협의 중에 있다.

도협의회장단,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계획 등 협의

본회는 지난 7월 28일 대전 유성 “만나” 식당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 외 부회장단, 도협의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04년 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계획 수립 및 공청회 개최와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 개최 추진 등과 관련해 협의했다.

또한 회장단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라·제주권 지역을 시작으로 개최될 프랑스 PMWS 전문가의 세미나 및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대전 유성 신용협동조합 연수원에서 열릴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 개최 추진 것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양돈산업 관건 “분뇨처리 해결”

- 양돈농가, 분뇨처리 등 시설·환경분야에 가
장큰 정책 비중 요구

양돈농가들은 본회가 농업·농촌 종합대책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한국 양돈협회(이하 양돈협회)가 주최하고, 양돈협회에서 주관하는 양돈농가 설문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양돈협회에서 주관하는 양돈농가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은 양돈협회 홈페이지(www.kdc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돈협회에 문의하십시오.

(총 응답자 수 : 750명)

(기간) 2004-07-12 ~ 2004-08-05

• 방역, 위생분야	42 (5.6%)
• 분뇨처리 등 시설·환경	458 (61.1%)
• 양돈농가 경영 지원분야	96 (12.8%)
• 돼지고기 유통, 육가공	99 (13.2%)
• 양돈농가 세보분야	14 (1.9%)
• 양돈농가 소득 증대	138 (18.4%)
• 기타	6 (0.8%)

세부추진계획 (안) 제출시 분뇨처리 등 시설·환경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는 7월 12일부터 8월 5일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 계획 중 어느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750명이며, 이 가운데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뇨처리 등 시설·환경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양돈농가는 458명으로 전체의 61.1%에 해당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양돈농가의 반 이상이 분뇨처리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양돈농가에서는 사료원료 수급 등 가격 안정분야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138명이 응답해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그밖에 ▲돼지고기 유통, 육가공 수급분야 7.5% ▲방역, 위생 분야 5.6% ▲양돈장 경영 지원분야 4.8% ▲종돈개량, AI 보급 등 육종분야 1.9%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요리 베스트 10선 전시·시식회” 개최

본회(회장 최영열)는 충남 조치원소재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에서 개최한 제2회 복숭아 축제를 맞이하여 8월 6일(금)~7일(토) 이를

동안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개최해 축제에 참가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100페이지 참조)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96만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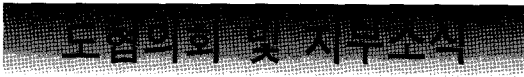
지난 7월 20일(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39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96만7천62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수퍼돈 2두를 비롯, 최우수돈 8두 포함 총 122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22두 모두가 낙찰됐으며,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4만8천736원(87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76만6천원(35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6점) 수퍼돈이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암리 185-5번지 제일축산 김낙서씨에게 최고가인 5백만원에 낙찰됐으며, 포천종돈 대요크셔 수컷(선발지수 263점)이 2백7십만원에 낙찰되는 등 총 낙찰총액은 1억1천8백5만원을 나타냈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88만 5천원

8월 10일(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하동) 제168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낙찰가는 88만5천49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수퍼돈 4두를 비롯해 최우수돈 6두를 포함, 총 147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42두가 낙찰됐다.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91만3천70원(114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77만3천214원(28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우정종돈 등록 수컷(선발지수 266점) 최우수돈이 전남 순천시 연항동 1335-2번지 정동기씨(순천축협 AI센타)에게 최고 낙찰가인 3백만원에 낙찰됐으며, 그린팜스 등록 수컷(선발지수 271점) 수퍼돈이 2백7십만원에 낙찰되는 등 총 낙찰금액은 1억2천5백74만원을 기록했다.



전북도협, 교체모돈 수출 추진 위해 필리핀 조사단 파견



전북도협의회는 지난 8월 11일에서 15일까지 4박 5일간 송정기 도협의회장 외 15명이 교체모돈의 필리핀 수출 추진과 관련해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였다.

전북도협의회 방문단은 한국산 돈육을 원료육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 시찰 및 면담을 위해 필리핀 육가공 공장 및 한국산 돈육 가공장을 방문하였으며, 그밖에 필리핀 검역원, 육류 유통 재래시장, 마닐라 백화점의 냉장육 및 캔제품 유통현황 등을 시찰해 필리핀 현지 돼지고기 시장 유통 형태 및 돼지고기 가격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입

위생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괴산지부 현판식 및 전병철 지부장 취임식 가져

본회 충북 괴산지부(지부장 전병철)는 지난 8월 4일 김문배 괴산군수, 이재화 괴산군의회 의장과 최영열 본회장, 각 시군지부장과 지부 회원 등 양돈업계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지부 현판식과 함께 지부장 취임식을 가졌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102페이지 참조)

당진지부, 돈육브랜드화 관련 교육 실시

당진지부(지부장 차선수)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 남청현 의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한마을 권혁만 팀장은 “돈육브랜드화와 양돈산업의 계열화”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영열 회장, 영동지부 방문 교육

본회 최영열 회장은 7월 16일 영동지부(지부장 배상수)를 방문해 영동 새마을 금고 회의실에서 배상수 지부장, 옥천 조관현 지부장, 축협조합장, 축산과 계장 외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영열 회장은 질병 발생시 마스크의 과다한 살처분 장면 방영 자제 요청에 대해 자조금 사업으로 방송국 기자 등을 교육시키고, 청정 돼지고기 이미지 홍보물을 제작해 방송국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그밖

에 돼지고기 유통실명제와 생균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보령지부, PMWS극복 위해 꾸준히 노력

보령지부(지부장 정재홍)는 한국 애니멀클리닉 김태주 원장 등과 함께 4월 월례회의부터 7월 월례회의까지 4회에 걸쳐 PMWS 극복을 위한 돼지 사양관리와 질병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매회 회원 35여명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농장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증평지부, 긴급가축방역소독약품 배정 공급키로

증평지부(지부장 연구원)는 지난 7월 19일 12시 협회 사무실에서 연구원 지부장과 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돈열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를 공개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돈육축제 및 무료시식회, 요리 경연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남지부, 높은 사료가격에 따른 생존방안 모색

해남지부(지부장 박주남)는 7월 19일 축협 회의실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해남지부는 이날 최근 높은 사료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을 위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현 상황을 짚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축협중앙회의 주최로 열린 이

번 세미나에서는 농협중앙회 남두석 박사가 '고가 사료에서의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밀양지부, 여름철 돈사관리 철저 결의

밀양지부(지부장 양대식)는 지난 7월 20일 밀양지부 사무실에서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대식 지부장의 18명의 회원들은 최근 여름철 무더위에 따라 하절기 돈사 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며 돈사 관리 요령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경남첨단양돈연구소 도창희 소장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양돈농가와 양돈연구소 연구사업의 현장접목 및 상호 간 정보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축산 건폐율 현실화와 돈사환경법 강화에 따른 냄새 등의 규제조항에 대한 완화 등을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영천지부, 여름철 돈사관리 만전 기할 것 결의

영천지부(지부장 김성곤)는 지난 7월 23일 영천지부 사무실에서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현재 농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토의하며 축산분야 대책을 마련해 축분 공동 처리장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서남지부, 회원 야유회행사 개최

서남지부(지부장 손용조)는 지난 7월 27일



화요일 11시 제주 서귀포시 자연휴양림에서 지부 회원과 가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인 하계 야유회를 개최해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포천지부, 돈육 특화사업 등 논의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1시 협회 사무실에서 7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돈육 특화사업과 관련 출자 회원 및 출자금 조성에 대해 협의했으며, 분노 해양투기의 단가 조성 및 시청 지원, 경기도 지원사업 및 농림부 지원사업의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최근 축산업 등록제의 추진상황에 따른 경과 보고와 완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천지부, 돼지풀 제거 공동작업 실시

연천지부(지부장 윤상협)는 지난 4일 돼지풀 제거에 대한 양돈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일조하고자 돼지풀 제거 공동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양돈인들은 행사객이 많은 내산천 제방의 돼지풀을 뽑고, 인근 공터의 집중서식지에는 방역장비를 활용한 제조제 살포로 돼지풀을 제거했다.

울산지부, 최영열 회장 방문해 양돈 현안 등 논의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는 지난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알프스뷔페 3층 소연회의실에



서 최영열 회장과 다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센터 운영 및 양돈현안 등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으며, 회원들은 최영열 회장과 의 간담회를 통해 협회 홍보 동영상 및 TV광고 등을 상영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평택지부, 돈가 전망 세미나 개최

평택지부(지부장 김용진)는 지난 8월 13일 오전 11시 그린가든웨딩홀에서 8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선진한마을의 브랜드 돈육가 및 양돈 장단기 돈가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좋은 후보돈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지부, PMWS 극복 및 향후 돈가 전망 관련 세미나 개최

양주지부(지부장 조운상)는 지난 8월 13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운상 지부장과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신벡트컨설팅 신현덕 원장이 PMWS 질병 극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천하제일사료 편명식 PM이 '향후 돈가전망'에 대해 강의하였다. 아울러 회원들은 PMWS 극복과 하반기 돈가 동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으며, 9월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양돈**